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들

DUPLICATE
DIVISION OF ORIENTALIA

3 … Copy ___ 1962

화살

1961년 3월호 (140)

원 광수 그림

송 시엽 그림

다수확의 왕들 자기 령지로 간다

최 영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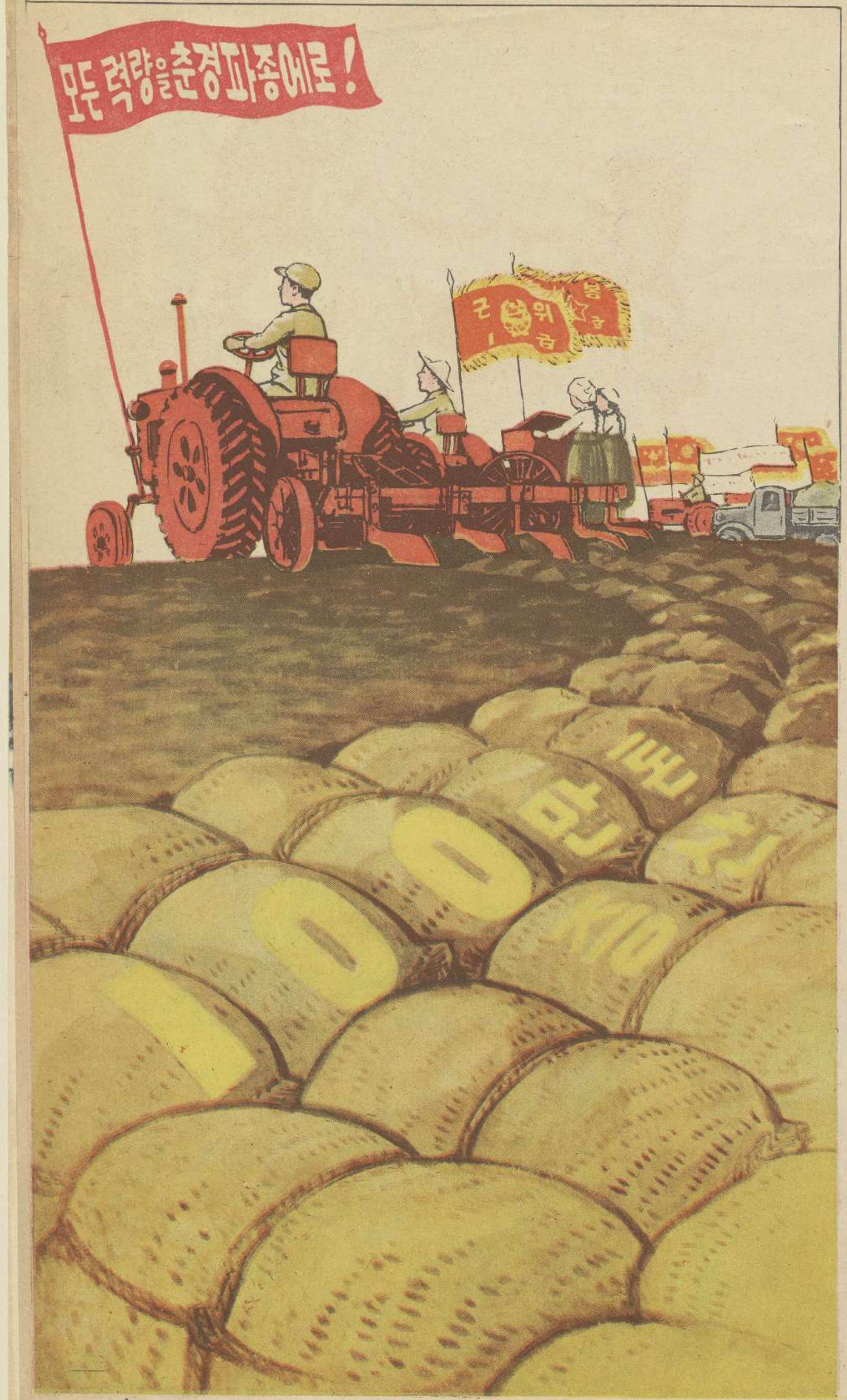
벼—여보! 내가 차지 할 저 논벌이 얼마나 광활하오…
옥수수—너무 자랑 마시오, 밭에서야 내가 왕이구 량강도 같은 산간 지대에서는 감자가 왕이 아니요…

오늘의 노력은 래일의 열매

원 광수 그림

협동 조합에 봄은 왔다

최 영근 그림



안 창수 그림

《팔자》고친 폐물들의 단장

《…동무! 우리 폐물 종합 공장하고 동무가 일하는 비날론 공장 건설장과 련대적 혁신을 일으키잔 말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선 그곳에 0.5 미리 짜리 파철사가 있으면 좀 구해서 보내 주시구려, 지금 스나프 단추 생산에서 딱 걸렸어요…》

여기까지 내려 읽던 김 동무는 편지를 움켜 쥔채

《제기랄 동무보다두 그까짓 쇠부치가 더 중요한가? 오래간만에 부친 편지인데 이건 문안 편지두 아니구 〈파철 지도서〉두 아니구 그런가 하면 〈증산 경쟁 호소문〉두 아니구 대관절 알 수가 없단 말이야…》하고 투덜투덜하였다.

그러나 김 동무로 말하면 천리마 기수요 이런 사연인즉 남의 일이 아니고 동무의 사정이자 자기의 사정이라는 걸 넉넉히 알아채릴 사람이였다. 더군다나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자 그는 대뜸 마누라의 요구에 응할 것을 결심하였던 것이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광성 공예품 생산 협동 조합에서 생산 협의회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론의되다가 그만 엉뚱한 〈축산 문제〉가 튀여 나왔다.

《…글쎄 말입니다. 우리 공장이 신의주 법랑 철기 공장 부산물만 가지구 〈편식〉하다간 〈축산〉이나 〈발전〉 될 형편이니 말이요…》

한 친구가 문제를 이렇게 거꾸로 풀게 되는 통에 구라인다 직장 오 일환 동무가 흥분해서 한바탕 쏘아 받쳤다.

《옛기 사람아! 그럼 우리 생산 협동 조합이 목장으루 전환한단 말인가?》

《아니 그거야 해석에 달렸지요, 원료 기지가 단조로우면 폐설물 원료가 딸릴 것이고 쫓아서 생산이 줄어들면〈축산〉이지 뭡니까》

이때 한 민청원이 소포 보'짐을 안고 들어 왔다. 소포 임자인 김 춘길 아주머니가 인차 알아채리고 대중들 앞에다 그걸 제깍 받아서 터쳐 놓으니 그 속에서 0.5 미리짜리 스프링 와이야 뭉테기가 튀여 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랐으나 스나프 직장 사람들은 그걸 보자 어느덧 손벽을 치면서 함성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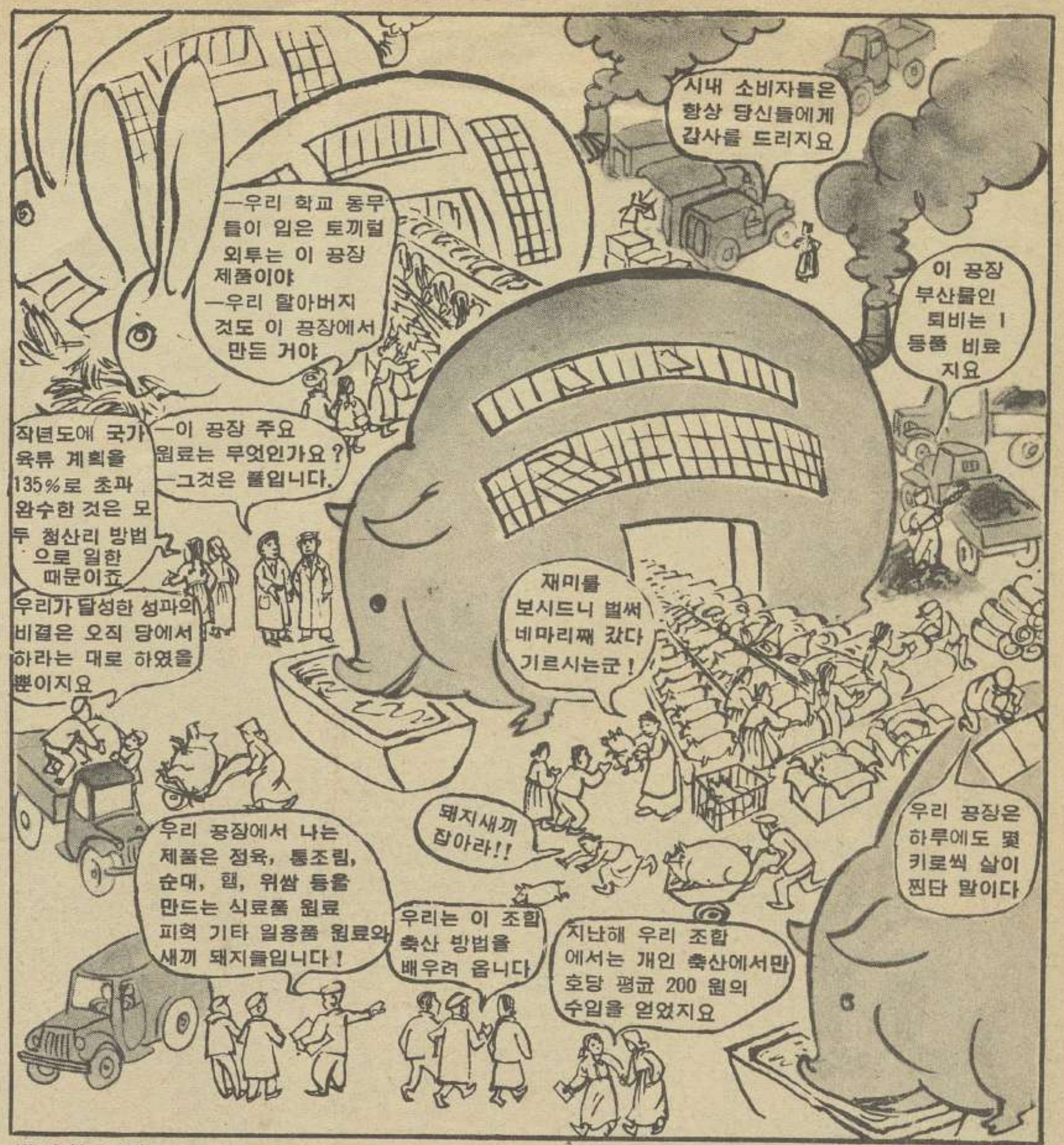
잠시 휴식후에 생산 협의회는 계속되였다. 일용품 직장 최 시덕 동무가 한참이나 눈을 시번덕거리면서 생각을 짜더니 부수수 일어섰다.

《우리는 원료 더미 우에 앉아서 원료를 찾아 다니는 판입니다. 이 고장 백토리 로인들이 그러는데 우리 공장 주변에는 옛날 일본놈들이 실어 가던 백토가 무진장이라는데…》

재형의《애'군》들

함남 단천군 심 상기 그림

소신 농업 협동 조합의 가축 공장



박 승히 그림

지난 해 평양시 력포구역 소신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집단 사육과 분산 사육을 결합하여 축산업을 옳게 발전시킴으로써 조합의 축산 토대를 튼튼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빠짐없이 2.9마리의 돼지에 15 마리씩의 토끼를 길러 국가에 리익을 주는 동시에 조합원들의 수입을 현저히 증가시켰다.

이 말을 듣자 구목 직장 최 명도가 한마디 더 보태였다.

《그러니 우리 공장 주변에는 밥사발, 국사발, 접시, 변대, 라제따, 소케트, 애자, 애관들이 디굴디굴 굴러다니는 셈이로군…》

이번에는 소포 내막을 곰곰히 생각하던 전 용선 동무가 일어 서더니 더 깨쳤다.

《우리는 이때까지 김 춘길 아주머니가 훌륭한 업무 일'군이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 보따리야말로 각처에서 천대를 받으면서 굴러 다니는 파 와이야, 낡은 철판, 낡은 치솔'대, 낡은 비누갑, 파구라인다, 머리칼, 돼지 털, 말초리, 낡은 필림 기타 각종 폐설물들에게 서광을 안겨준 셈입니다.》 라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 이 공장에서는 원료 기지 조성, 품종 확대, 질 제고를 위한 투쟁이 더 세차게 벌어 졌다.

전람회에서 풀린 의심

《아니 여보! 이걸 어데서 가져 왔소?》

신의주 피물 생산 협동 조합 업무원이 가방쇠 4만 개를 인수해 가자 대뜸 이런 다짐을 받았다.

《아니 광성 공예품인데두 뭘 그렇게 놀랍니까?》

《아니 대관절 언제부터 이 쇠부치 물건들이 이렇게 달라졌소?》

사람들은 의심스러워서 다시 물었다.

《그 공장에서는 작년 12월을 척 넘어서자 백화점과 수매 상점들을 돌아 다니면서 수요자들의 요구를 알아 내더니 어느 새 수동 프레스가 제까닥 전동 프레스로 교체되고 기계화가 도입되면서 별별 물건들이 다 나오고 그것두 모두가 국제적 수준에서…》

《아니 그새 품종이 얼마나 늘었길래 파장두 분수가 있지…》

《파장이 뭡니까 원료 기지를 공화국 방방곡곡에 티여놓고 희귀한 물건들은 보따리 놀음으루까지 날라 오구 공장, 광산, 직장, 가두, 학교, 농촌이 온통 〈광성 공예품 생산 협동 원료 공급 기지〉라는 〈간판〉을 달았는데 뭘 그래요》

업무원의 말을 들던 사람들은 저마다 머리를 흔들어 보다가 입속으로 중얼중얼 하였다.

《우리 제품의 특징은 수요자들을 복종시키는 것인데 광성 공예품치는 아주 수요자들에게 복종된 판이로군…》

그후 평양 각도 련합 직매점에서 열린 상품 전람회에서는 손님들끼리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였다.

《이걸 보시구려〈화장 쎄트〉를! 그리구 저 〈조립식 치솔〉과 〈손톱 짜르개〉들이 죄다 광성 공예품 생산 협동 제품들인데 저것들이 머지않아 우리 나라 상품 사절단에 끼워서 국제 시장에 나가게 된답니다…》

평양에 올라 갔던 신의주 피물 생산 협동 조합 출장원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서야 자기 직장 업무원의 말이 납득되였다.

서 득창

북간도로 떠나면서 부른 노래
벽동군 마전리 한응민이
돌아 올때 있으리라
새나라 품속으로
외눈꿀 벽리며 내 떠나건만
땅조차 뺑기니 어이살고
벼천네 굶어죽어 장사 지내고
왜놈에 지배되어 략탈 당하니
바랐고 사는것은 화전 땅쪼박 뿐인데
산간 벽촌 벽동이라
눈물로 베옷 적시었다오
압록강 건너서며
북간도 찾어 찾어
용암천 다리건너
구룡산에 옛할 쌓고
살래야 살수 없어
누더기 한벌 베옷에
춘하 추동 사시절
정배살이 벽동
벽동 벽동
정배 살이 벽동

허 능택 그림

벽동군 서클원들의 집체창작
정든 고향아 꽃피는 산촌이여
아아!
수풍호를 고운비단 무지개로 비끼네
거리엔 구름같이 양떼들로고
산마다 봉마다 보화요
수상님 다녀가신 새 고향은
머루다래 불로주 대접하자네
사랑하는 부모님 장수하시라
칠리마 기수들께 드리고
비래봉 산삼은 정성껏 캐여
황금의 열매따라 산으로 가세
마천골 처녀들 노래 부르며
꾀꼴새 꾀꼴 꾀꼴 우짖는데
산에는 산딸기 곱게 물들고
꽃피는 산촌
벽동 상점

송 시영 그림

집안 팔아 먹는다

미제의 조종밑에 장 면 괴뢰 도당은 미국 딸라 대 남조선 화폐와의 《환률》을 1 딸라 대 1천 300환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금년도에 미제가 강매하는 《원조》 물자에서만도 작년 1월 650 대 1 이였던 당시에 비하여 실로 1천 600억환을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추가적으로 수탈케 된다.

백 인균 그림

사환'군

함북 청진시 최 성술 그림

완전무결한 2.6배

로 철

갑: 쳇! 장 면인지 당면인지 하는 그 미국놈 사환'군이 《환률》을 불과 1 년도 못되는 기간에 2.6 배 올려서 1 딸라대 1300 환으로 만들어 놓았다지? 이건 가뜩이나 못살 세상에 쌀값, 물값, 탄값, 전기값, 뻐스값할 것 없이 당장에 2.6 배 이상씩 물가가 오르니 살 수가 있느냐 말야! 에익, 이 놈의 망할 세상, 빨리 갈아 치워야지 원!

을: 쉿! 누가 엿듣겠네. 자네 벌금도 2.6 배이상 인상되고 그 대신 류치장 콩밥은 2.6배이상 인하 됐단말 못 들었나? 말 조심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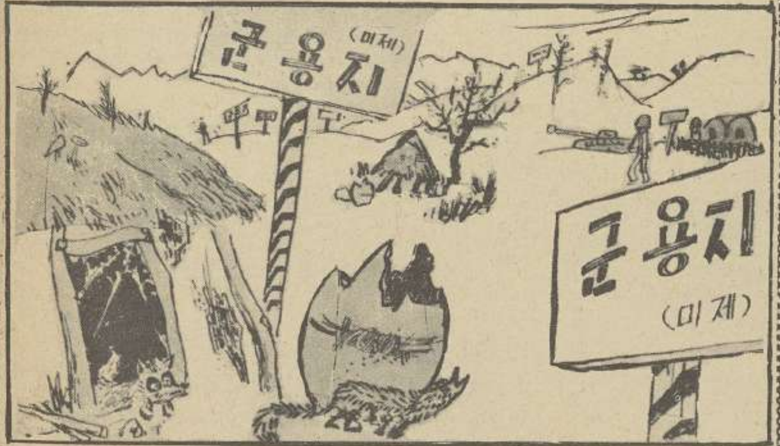
《내무부 장관》: 여보, 서울시 경찰 국장이요? 왜 며칠 전부터 구해 보라던 그 증인을 빨리 올려 보내질 않소, 앙?

《경찰 국장》: 네,그,저 《장 면 내각이 취임 이래 경찰에서의 고문 제도를 일체 엄금했다》는 걸 증명할 증인말입죠?

《장관》: 그렇소. 지금 국회에서는 야당패들이 《왜 장 면은 취임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인차 사직하라》고 야단들인데 아니,그까짓 증인 하나 구하는게 그리 힘들단 말이요,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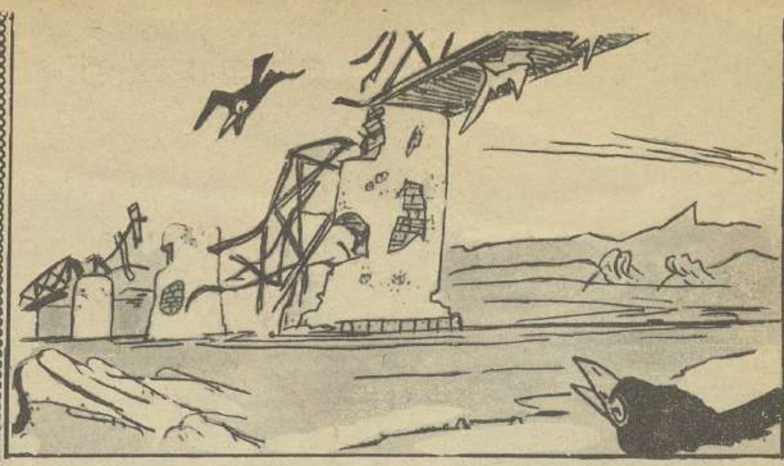
《국장》: 방금 전에 하나 구해 놨으니 걱정 놓으십쇼 각하! 그 증인 노릇할 자식이 지금 인사 불성이 돼서 제 방바닥에 늘어져 있지만 한 10분 후에는 깨여 날터이니까 인차 각하께 끌고 갑죠.네.

1) 분계선 패말 남쪽에는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철갑모를 쓴 승냥이 떼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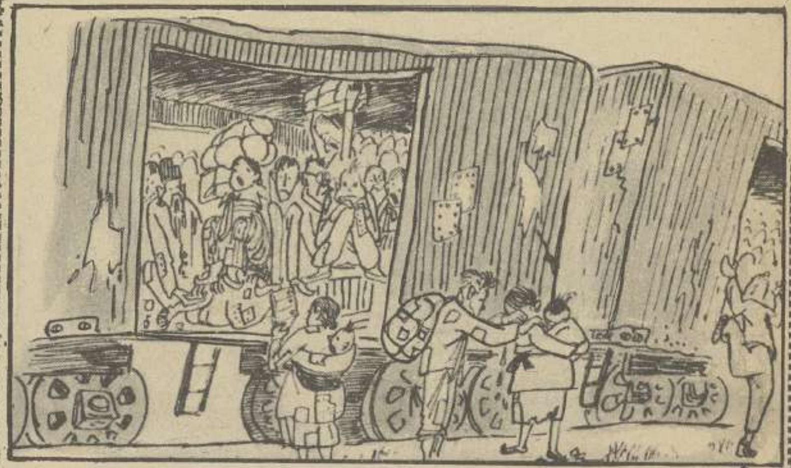
2) 분계선에서 40리는 인가라고는 볼 수 없고 조선 사람 이라고는 그림자도 구경할 수 없다. 미국놈들의 군용지로 화한 이 고장은 다만 네발 가진 짐승과 두발 가진 짐승들이 싸 다니고 있을 뿐이다.

3) 놈들은 눈만 떨어지면 군사 련습으로 미친 지랄을 하는 통에 마을이 불타고 농토가 황폐화되고 행인이 류탄에 맞아 생명을 잃으니 남조선 인민들은 언제 어데서 생벼락을 맞을지 모를 처지이다.



4) 림진강 철교는 산산히 부서져 마음대로 강물을 오고 갈 수 있는 것은 다만 날짐승들 뿐이다.

5) 이곳은 미제의 집단적 폭행이 자행된 곳으로서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한 파주 땅이다. 정든 고향에서 살 수 없어 수 많은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류랑 걸식의 길로 떠나고 만다.



6) 서울행 기차는 문산에서 비로소 타게된다. 기차를 타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설사 탄다 해도 행인들은 지옥 살이를 겪지 않으면 안되는 데다가 빈번한 교통 사고로 언제 어떻게 될런지 몰라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7) 남조선 어데를 가나 다르랴만은 누더기 집 누더기 옷차림이 부쩍 느는 것으로 보아 서울이 가까워진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참경을 목격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미제에 대한 더욱 치솟는 분격을 억제할 수 없었다.

조 명식 그림

겨울에 찾아온《보리' 고개》

백 인균 그림

—엄마 배고파!
—얘야 저놈의 춘궁이 몇달 전부터 앞당겨 와 있구나…

강남 갔던 제비는 돌아 오는데
왜 집을 떠나야 하는가?!

백 인균 그림

춘궁기에 직면한 남조선 농촌은 갈수록 더욱 무서운 기아 상태에 빠지고 있다. 이리하여 지금 《배고파 못살겠다》는 주림에 지친 농민들의 통절한 몸부짖음은 끊임 없이 《농가에서 농가로 메아리쳐 가》 남조선 전 지역을 뒤덮고 있다.

《지방 시찰》

리 철희

장관 《헤에 요즘은 왜 이렇게 우울해지기만 할까? 좀 기분을 전환해야 하겠는데…》

비서 《식도락(食道樂) 색도락(色道樂)이 기분 전환에는 제일입지요》

장관 《말 말게! 인젠 장안의 일류 료리와 박래품, 고급 양주에도 별미를 느끼지 않네!》

비서 《그럼 한번 지방 시찰을 떠나시는게 어떠하올지? 민심도 수습할 겸 지방에 내려 가시면 출장비도 수만환 남을 것이고 각 지방에는 또 특산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 데마다 별미를 맛 보시고 사바사바…아니 별도 수입도 생길테고……》

장관 《거 참 명안 일세! 그럼 곧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로 갈 준비를 해 주게!》

× ×

장관 《허…내가 시찰한다고 알리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마중들을 나오는군! 됐어! 됐어!… 예가 어딘가?》

군수 《익산군 무현 부락이올시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저 놈들은 환영하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길이 없어 정든 마을을 떠나는 백성들이 온데 40 세대가 몽땅 한꺼번에 떠난답니다》

장관 《엑크 그럼 저 부락에 갔다간 굶게 될 판이군! 얘 운전수! 차를 돌렸!》

× ×

장관 《여기는 어딘고?》

군수 《여기는 행안면 궁안리구요, 저쪽은 삼간리 올시다》

장관 《허…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살이 쪘구만!… 좀 살'결들이 누른게 보기 흉하지만… 여기 특산물은 록용인가? 마침 잘 왔군!》

군수 《아닙니다 이곳 4백 여호의 농가들에서는 절량된지 오래되여 방금 무리 죽음을 면치 못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 살이 찐게 아니라 부은 것입니다》

장관 《뭐? 뭐? 부은 것이라구?》

군수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당장 폭동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장관 《폭동? 야 이것 봐라! 또 잘 못 왔군! 얘! 운전수 차를 돌렸!》

× ×

장관 《여기는 어딘고?》

군수 《이곳은 량산 땅입니다.》

장관 《이건 뭐냐? 응! 한약이로구나! 호호 호 그렇다니까!
지방에 내려와야 진기한 보약도 먹을 수 있지!》

농민 《보약은 무슨 벼락 맞을 보약?… 그게 우리의 식량이라오. 그런게라도 많았으면 좋겠소》

장관 《온 남한 농촌이 모두 절량 농가란 말인가? 에이 고약한 백성놈들!장관도 알아 보지 못하고…얘!운전수 차를 돌렸!》

× ×

장관 《저기 나무 밑에 사람들이 서 있군!저건 시위나 폭동을 일으키려는 자들은 아닌가? 그런데 왜 발이 공중에 떴을까?》

군수 《저건 굶다 못해 목매여 죽은 백성들이 올시다 전라북도에서만 자살한 농민이 무려 2백 명입니다》

장관 《얘! 소름이 끼친다 빨리 서울로 돌아가자!》

망할 세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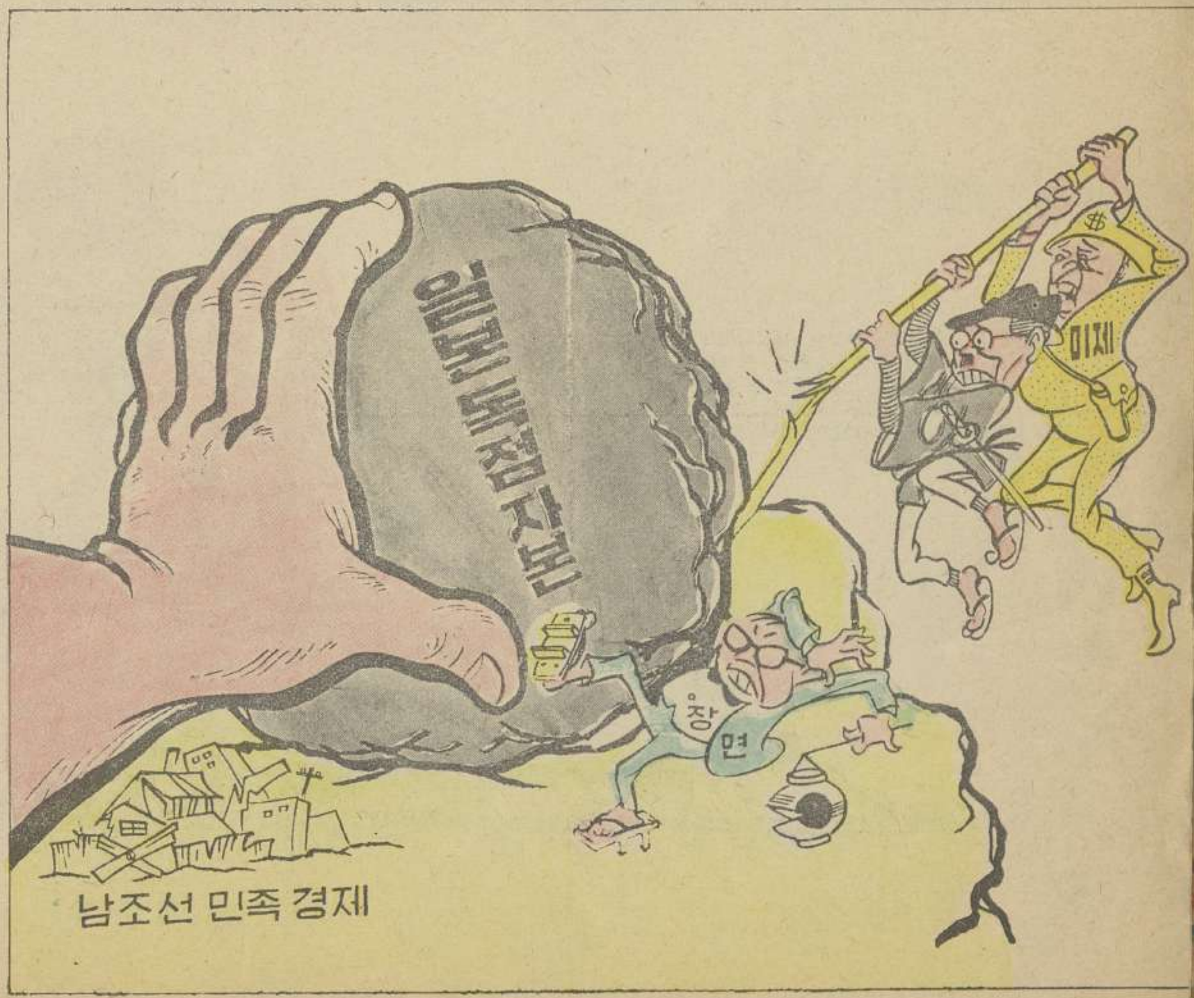
박 승히 그림

박 승히 그림

일본 이께다 정부와 남조선 장 면 일당 간에 강행되고 있는 《한일 회담》은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 집단을 야합시킴으로써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남조선에 대한 재침략의 길을 열어 주며 그를 끌간으로 아세아의 괴뢰들을 묶어 세우려는 미제의 음흉한 책동의 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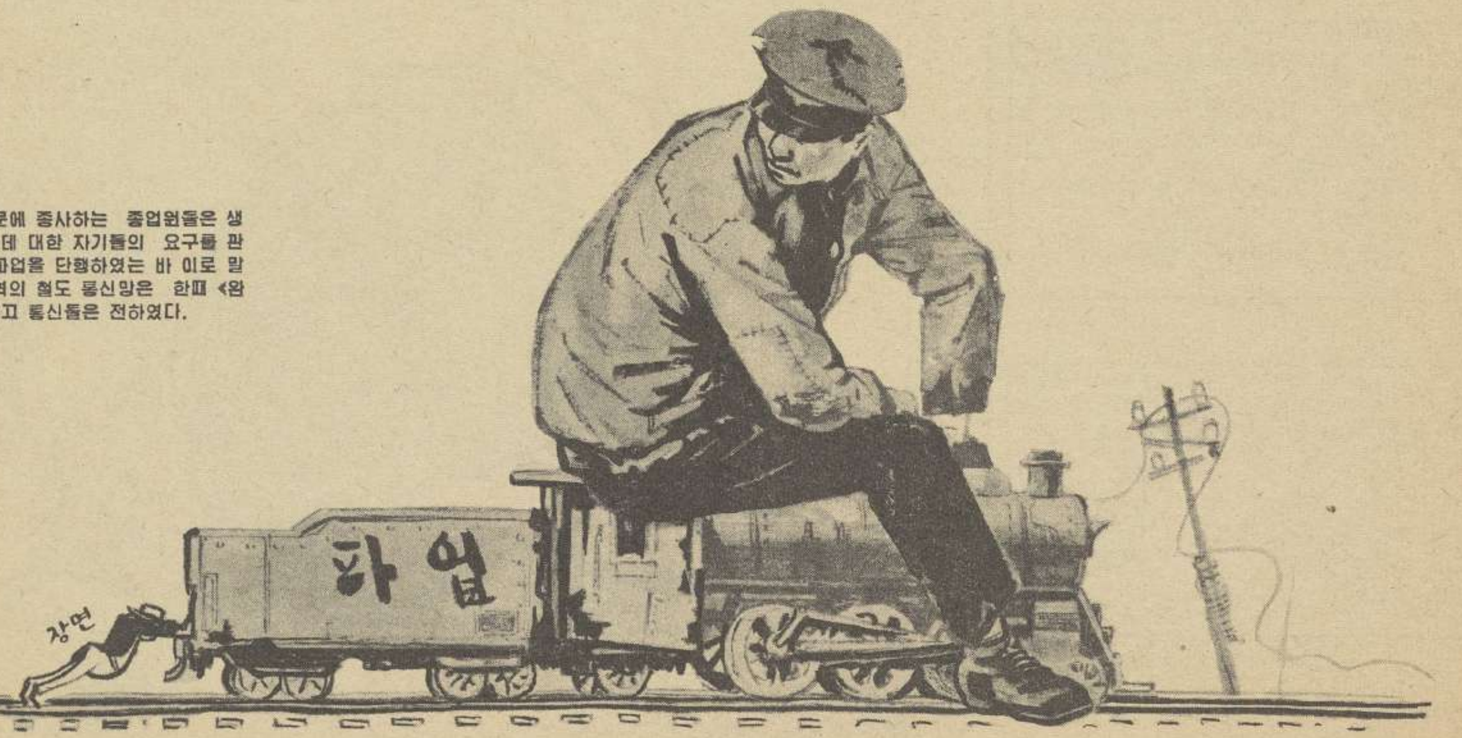
들여 놓을 수 없다!

함흥시 성천 구역 고 임홍 그림



막을 수 없는 힘

박 승히 그림



남조선 철도 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생활 조건을 개선할 데 대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총파업을 단행하였는 바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 전역의 철도 통신망은 한때 《완전히 마비》 되였다고 통신들은 전하였다.

안 창수 그림

글 취소 하시오

신 홍순

기자 저를 찾으셨습니까?

장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어?

기자 뭘 말입니까?

장관 누굴 잡을라구 이따우 허위 보도를 냈나 말요!

기자 허위 보도라니요? 아 어제 장관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민간 단체끼리 협상하는 건 좋다구…

장관 미국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해야 된다구 했지 내가 언제 덮어 놓고 좋다구 그랬나?

기자 왜 책임지실까봐 그러십니까?

장관 어서 당장 취소하도록 하쇼!

기자 원 참 장관님두…지금 평화 통일 문제로 남조선 천지가 얼마나 들끓고 있습니까? 북조선에서 전기도 보내 주겠다 석탄도 주겠다 철재며 건재 그리고 각종 농기계며 비료, 어선 게다가 10만 세대의 주택까지 지어 주겠다구…

장관 여보여보! 이 기사나 얼른 취소시키란 말요!

기자 글쎄 인민들의 기세가 이런 판에 장관님의 담화가 그럴듯하게 발표 돼 놓니 이거야 말로 일대 쎈세이숀이 아닐 수 있습니까?

장관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요.

기자 그 담화 때문에 시방 장관님의 인기가 부쩍 올라 갔습니다.

장관 인기?

기자 그러믄요. 지금 항간에서 그 얘기 뿐인 걸요. 그러니 다음번 국회 의원 선거 땐 문제 없습니다.
그래두 이걸 취소할까요?

장관 이왕 한번 낸게니 그냥 내버려 두우

기자 정말이시죠?

장관 허어 장부가 아무러면 한입으로 두 말할까?

△ 미국 대사 서슬이 싯퍼래서 들어 온다.

장관 어이구 이거 어서 오십쇼.
(악수를 청하니 대사는 손을 탁 친다)

미국 대사: 장관! 당신 무슨 소리 떠벌렸습니까? 누구 승인 받고 이따우 담화 발표했습니까?

장관 네 백성들이 하도 들구 일어 나길래…

대사 닥치시오! 우리 미국 시종 일관 유엔 감시 하에 선거하자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성명에도 뭐라고 했습니까?《조선 통일은 조급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 이것이 우리 미국의 태도입니다.

장관 네

대사 그리고 미군 사령부 성명에서도 《남북 조선 사람이 서로 만나려면 유엔군 총 사령부의 승인을 맡아야 한다》고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장관 네 잘 압니다.

대사 그런데 왜 이따우 소리 지꺼렸습니까?

장관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저 기자가 제 맘대로 허위 날조했습니다

대사 신문 기자! 이 사람 말 옳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난 사실 그대로 보도했을 뿐입니다.

장관 사실 그대로라니?

기자 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장관 여보여보! 저 큰 일 날 소릴 막…

기자 이 량반이 미쳤나? 글쎄 일구 이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잖았소?

장관 야 임마! 내가 언제 그랬어 너 당장 취소 못할테냐?

대사 나 장관 말 믿습니다. 곧 취소하시오!

기자 네 정 그러시다면 취소하죠.〈미국 대사의 명령으로 할 수 없이 취소함〉 이렇게…

대사 당신 무슨 소리 합니까?

기자 우리 신문사 위신도 있고 또 내 신용은 어떻게 됩니까?

장관 잔소리 말구 취소해!

기자 못하겠소!

장관 고발하겠다!

기자 나도 고발 할테요.

△ 밖에서 인민들의 함성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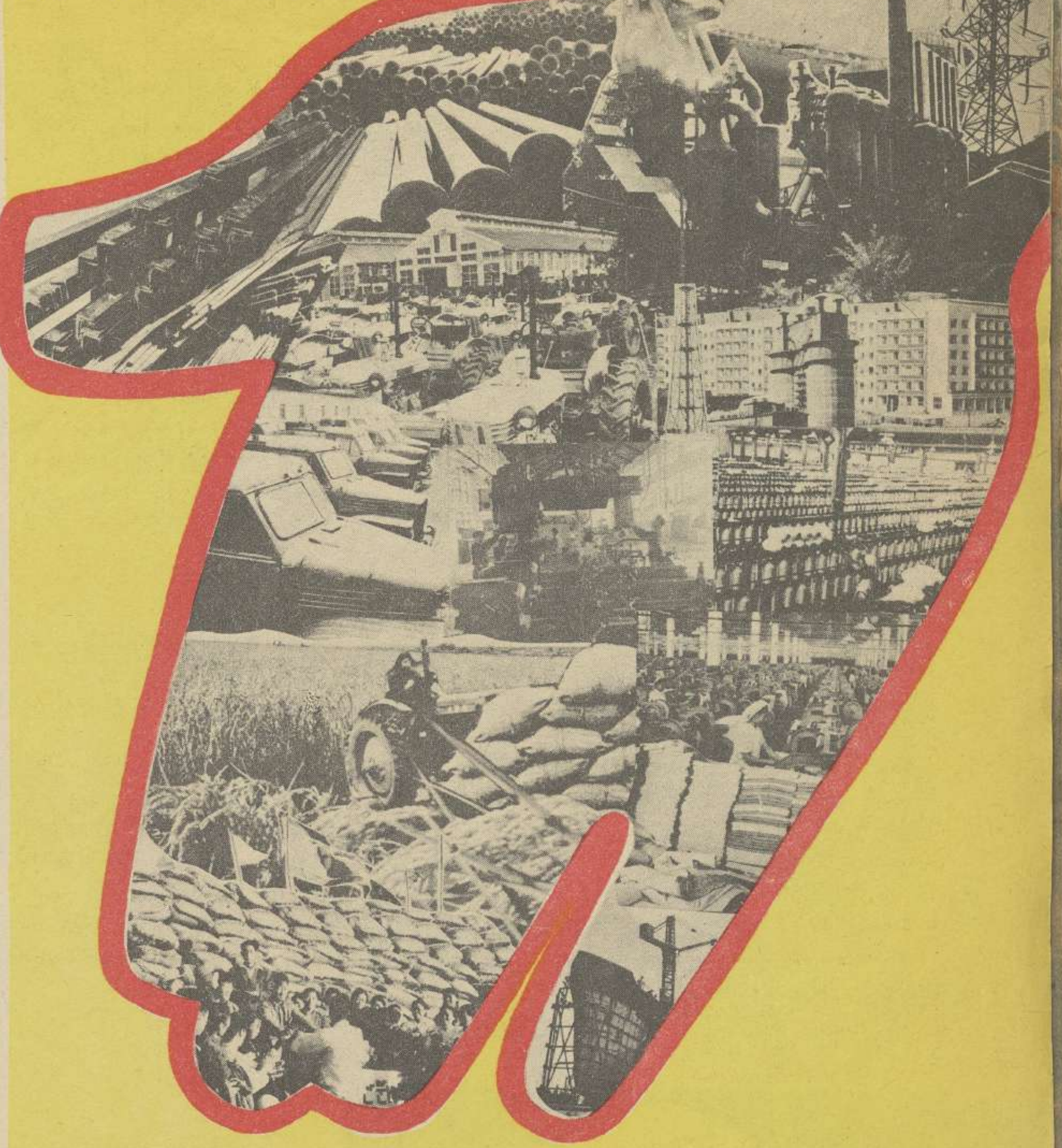
대사 (당황하여) 이거 취소 안하면 당신들 당장 목아집니다! 책임지시오! (황겁히 나간다)

장관 어이구 기자 선생! 날 좀 살려 주우 제발 취소취소를!

기자 저 소릴 들어 보시우, 인민들이 저렇게 온통 들구 일어나는데 그까짓 신문 기사나 취소했다고 해서 무사할 줄 아우? (급히 나간다)

장관 여보 기자! 기자! 으흥…

지체 없이 구원되여야 한다



오늘 남조선의 파국적 사태를 수습하는 길은 오직 공화국 북반부의 강력한 경제 토대에 의거하는 데 있다.

원 광수 그림

(제 2 회) 오 은렬

(1) 생명과 딸라

미국의 어느 기선 한 채가 대서양을 건너다가 폭풍우를 만나 암초에 부딪쳤다. 밑창이 뚫어지고 바다'물은 사정 없이 밀려들어 기선은 마치도 깊은 바다 속에서 끌어 들기라도 할듯이 시시각각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기선에서는 구원을 요청하는 무전을 쳤다.

기다리던 헤리꼽터가 날아 왔다.

그런데 비행사는 줄사다리를 가까이 내려 줄 념은 하지 않고 꿰꿰 소리만 질렀다.

《한 사람 앞에 몇 딸라씩 내겠소? 몇 딸라…》

《뭐? 돈? 저런 빌어 먹을… 여보 비행사! 돈이 귀중하오? 생명이 귀중하오?》

《그러니까 허는 소리 안요?》

《에잇 빌어 먹을…1,000 딸라를 주지.》

《겨우 1,000 딸라? 그렇게 인색하게 그러시오? 5,000 딸라만 내시오.》

《뭐? 5,000 딸라? 여보, 그건 너무 비싸오. 3,000 딸라로 합시다.》

《에잇. 좋도록 합시다. 그럼 우선 확인서나 써서 올려 보내시요.》

《확인서? 아니? 여기 종이가 있소? 펜이 있소? 뭘로 확인서를 쓴단 말이요? 우선 사람부터 구해 주고 볼 일이지…》

《그따위 어리석은 소린 하지도 마오. 확인서도 안 받고 공짜로 태웠다가 나만 녹을려구?》 흥정은 계속되고 있다. 기선은 깊은 바다 속으로 기울어지고 아우성 소리 비명 소리 더는 들리지 않았다.

(2) 미국의 외교관

《브래크! 요놈의 자식을 단단히 묶어 놔라! 그리고 아가리엔 자갈을 물렷!》

《네— 헌데 나으리, 이 도령님은 앞집 톰이 아니십니까?》

《상관 없어! 사정 볼 것 없이 꽁꽁 묶어 놔. 요놈이 제법 도적질을 잘 헌다니까.》

그때 마침 미국에서도 이름난 외교관의 한 사람이며 백만 장자인 톰의 아버지가 자기 집 앞에 차를 멈추고 나섰다.

《음 마침 잘 만났소. 미스터 햄리트, 안녕하십니까?》

《오우! 하나님의 덕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허허허… 헌데 그 앤 뭡니까? 오우!? 우리 톰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신네 톰은 아주 맹랑한 놈입니다. 내 방을 지키고 있는 개에게 독약을 먹여 죽이고 우리 집 다이야 목거리를 하나 훔쳐 내다가 나한테 붙들리였습니다. 당신으로 말하면 이름난 외교관이며 억만장자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요놈이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단단히 교양을 주겠습니다.》

외교관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 왔다.

《톰! 그래 네가 정말 개를 독살했냐?》

《네.》

《다이야 목거리도 훔쳐내고?》

《네, 꼭 하나…》

《그 집에 다이야 목거리가 하나 밖에 없던?》

《일곱 개나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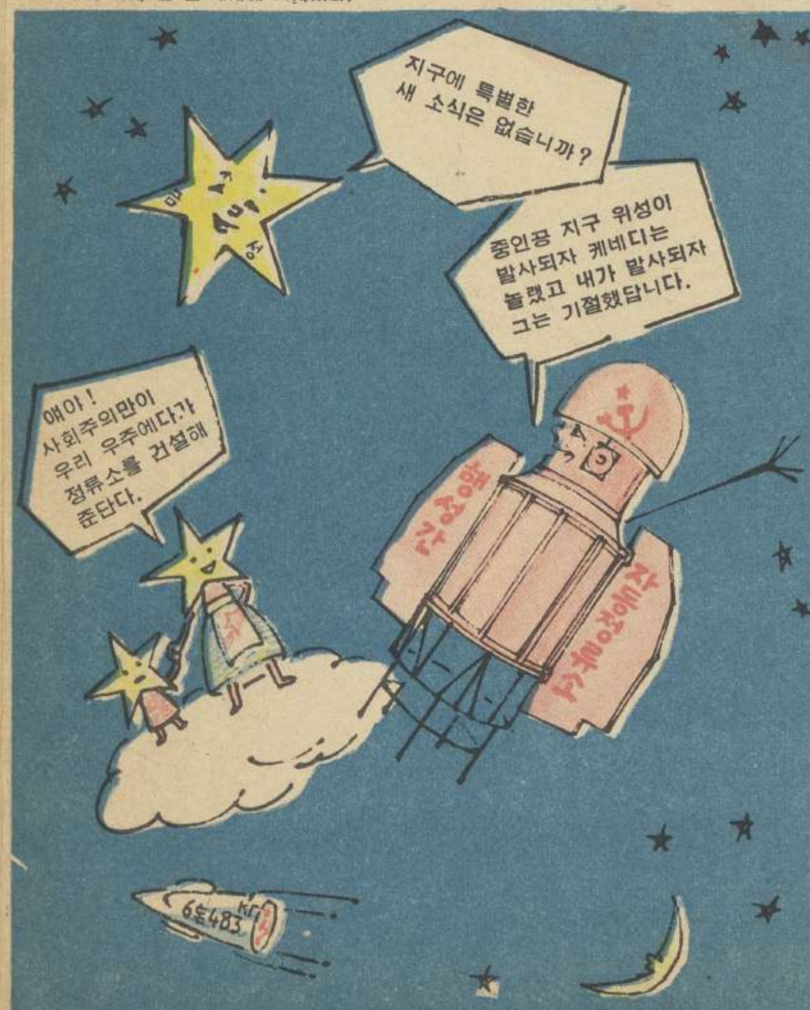
《이 자식아, 그런데 그걸 몽땅 감쪽 같이 훔쳐 내지 못하고 겨우 하나만 훔치다가 들켰어?! 이 빌어 먹을 자식아! 그러구두 미국의 외교관이 되겠다구? 어림도 없다! 이 자식아!》

딱!

격분한 외교관은 불이 번쩍 나도록 아들의 뺨을 후려 갈겼다.

쏘련은 우주 공간 연구 계획에 따라 보다 완성된 다계단 로케트에 의하여 중인공 위성을 발사했으며 이 지구 위성으로부터 행성간 자동 정류소를 발사하여 쏘련의 과학 성과와 사회주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세계에 과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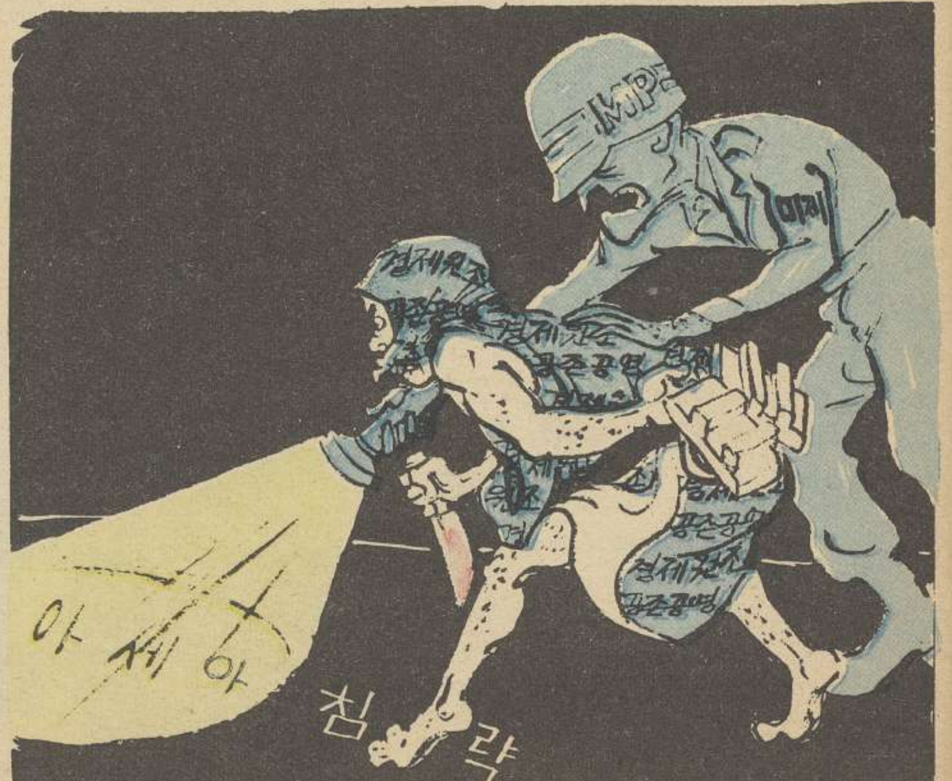
우주에서 벌어진 대화



최 영근 그림

졸개에게 길을 비쳐 주는 강도

최근 해외에 진출하려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책동이 더욱 표면화되고 있다. 이것은 극동과 아세아에 대한 침략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그 앞잡이로 리용하려고 기도하여 온 미 제국주의자들의 흉책이 더욱 로골화되였음을 의미한다.



박 승히 그림

오늘 자본주의 체계는 쇠퇴와 와해의 심각한 과정을 겪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적 파국의 징조는 그 아성인 미국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공업 생산은 1957년을 100 으로 한다면 1월에 111 로부터 12월에는 103 으로 저하되였으며 농업의 수입은 1951년 이래 25%나 감소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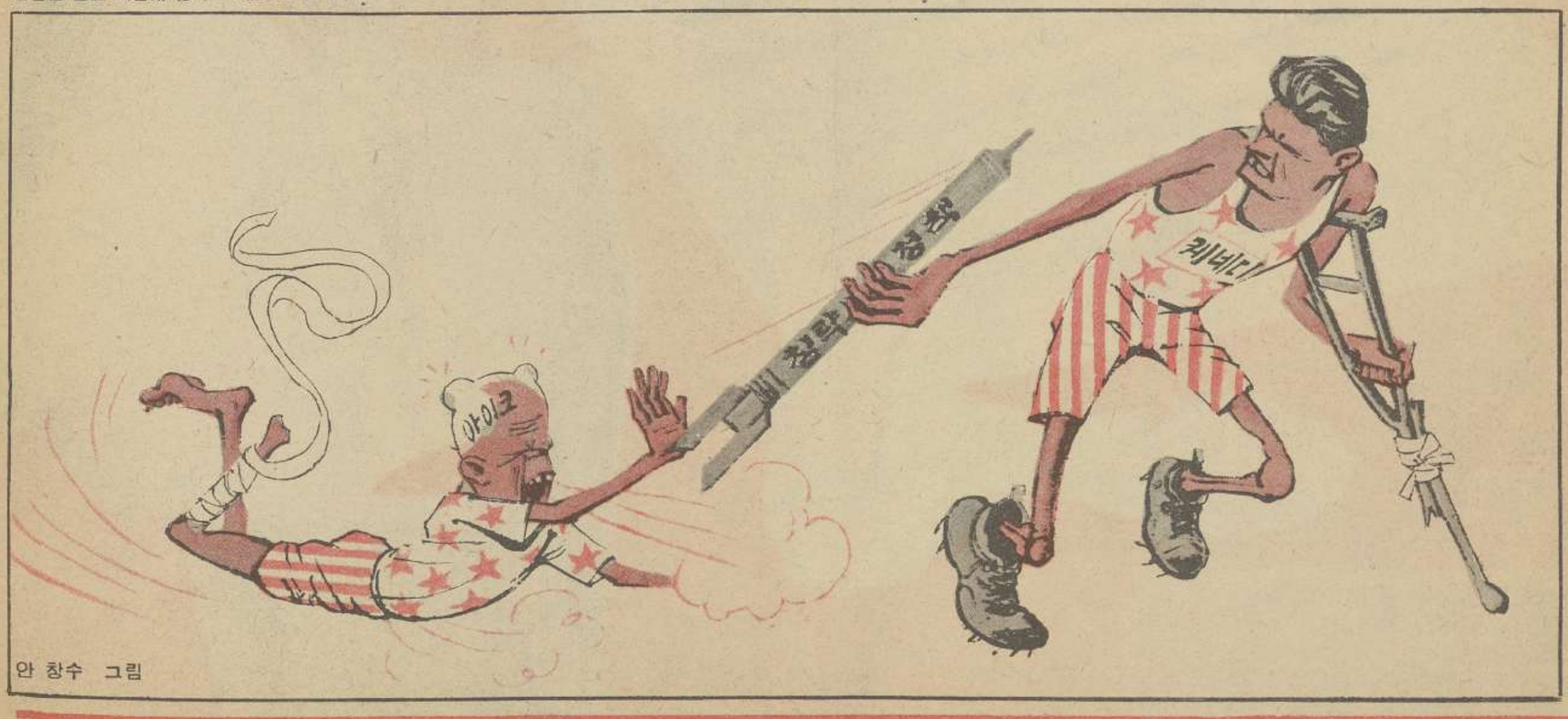
하강선

안 창수 그림

최 영근 그림

아이젠하워의 뒤를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케네디는 오늘 미국이 《민족적 위험의 시각》에 처해 있다고 실토하면서 미국과 같은 《그런 조직과 통치 제도를 가진 나라가 견디여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련 에서 《결말은 결코 확연치 않다》고 비명을 올렸다.

계주봉을 넘겨 받았다



안 창수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 25174
발행 1961. 3. 20 (값 40 전)

신판 《을사 조약》

미제 침략자들은 장 면 일당을 조종하여 소위 《한미 경제 및 기술 협정》이란 또 하나의 침략적 문건을 조작해냈다. 장 면 일당은 인민들의 준렬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국 《협정》에 서슴없이 서명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리 완용, 리 승만과 꼭 같은 매국 배족의 무리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여 준다.

박 승히 그림